

삼국에 전래된 담배의 이름과 설화에서 동질성으로 본 한국 담배의 기원 연구

정 기 택*

(2015년 11월 01일 접수 ; 2015년 12월 11일 수정 ; 2015년 12월 21일 승인)

Study on Origin of Korea Tobacco by Homogeneity of the Names and Folk Tales in the Tobaccos introduced among Three Countries

Kee-Taeg Jeong*

KT&G Central Research Institute, Daejeon 305-835, Korea

(Received Nov 01, 2015 ; Revised Dec 11, 2015 ; Accepted Dec 21, 2015)

ABSTRACTS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stablish the origin of Korea tobacco, by homogeneity of the names and folk tales for the tobaccos introduced among three countries. According to the literatures that had written the origin concerning tobacco during the survival period of the Korean author, Korea tobacco came from Japan, for the first time, in 1611~1612. Six years after the tobacco was introduced, in 1617~1618, tobacco seed also came from Japan. And 10 years after the tobacco was introduced, in 1621~1622, there was no person that do not smoke. The Korea tobacco name, Dambago(淡婆姑), was the same as Japan tobacco name, Dambago(淡婆姑), but it was not the same as China tobacco name, Tambaku(淡巴菰). The Korea tobacco's folk tale, Dambago(淡婆姑) story, was the same as Japan tobacco's folk tale, Dambago(淡婆姑) story, but it was not the same as China tobacco's folk tale, Tambaku(淡巴菰) or Banhonhyang(返魂香) stories. This finding suggests that Korea tobacco may surely come from Japan, considering homogeneities of the names and the folk tales in the tobaccos introduced among three countries.

Key words : origin, tobacco name, folk tale, homogeneity, dambago

우리나라 담배의 유래는 일본에서 먼저 들어왔다는 일본유래 설(노 등, 1970)과 중국에서 먼저 들어왔다는 중국유래 설(류, 1994)이 있다. 담배가 들어 온 시기에서도 임진왜란 중(1592~1598

; 류, 1994)에서부터 광해군 10년(1618 ; 노 등, 1970)으로 차이가 많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담배의 유래에 관한 이론이 아직 정립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유용한 고전 문헌을 충분히 활용할 수

*연락처 : 34118,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43 109동 604호(신성동, 한올아파트)

*Corresponding author : 43, Gajeong-ro, Yuseong-gu, Daejeon, 34118, Rep. of KOREA, Mobile : 010-5468-5658 ; e-mail : ktjeong48@gmail.com

없었기 때문이었다. 최근까지 대부분의 고전 문헌은 그 문헌을 작성한 후손들이나 고문헌 수집가들이 소장하고 있었다. 그리고 거의 모든 고전 문헌은 한문으로 작성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유용한 고전 문헌이 사장되어 오래 동안 활용할 수 없었다. 개인들이 소장하고 있는 고전 문헌을 수집하고, 전문가가 그 내용을 한글로 번역하여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료의 공유화가 절실히 필요하였다. 다행히도 지금 한국고전번역원에서 많은 고전을 수집하고 번역하여 “한국고전 종합DB”를 만들어 자료를 공유화하고 있다(한국고전종합DB, 2009).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인터넷”의 사용자 수가 세계인구의 45%로 증가하여 외국의 문헌도 인터넷에서 손쉽게 구하여 볼 수 있게 되었다(Internet World Stats, 2015). 따라서 이제 한국고전종합DB와 인터넷을 활용하여 국내의 담배자료의 조사로 우리나라 담배의 유래가 정립될 것으로 생각된다. 담배의 이름은 담배를 처음 전해주는 사람이 붙여준 고유의 이름이 있고, 그 다음 담배를 받은 사람들은 그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기도 하고 다른 이름으로 바꾸기도 하였다. 또한 담배를 전해줄 때 담배와 그 이름뿐만 아니라 담배에 관한 효능이 얹혀 있는 이야기(설화)도 전해주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온 담배의 이름과 설화를 일본 및 중국과 비교하여, 어느 나라의 것들이 서로 같은지, 동질성(同質性, Homogeneity)을 파악하는 것이 우리나라 담배의 유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일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에 처음 전래된 담배의 이름과 설화가 일본 및 중국과 동질성이 있는지를 조사하여, 우리나라 담배의 기원을 확립하는 것이다.

재료 및 방법

우리나라 담배의 유래와 관련된 문헌을 한국고전 종합DB(한국고전종합DB, 2009)에서 검색하였다. 일본 담배의 유래와 관련된 문헌을 Yahoo Japan(Yahoo Japan, 2015)과 위키백과사전(위키백과사전, 2015)에서 검색하였다. 그리고 중국 담배의 유래와 관련된 문헌을 維基百

科自由的百科全書(維基百科, 2015)와 VIP維普網(VIP維普網, 2015)에서 검색하였다. 우선, 한국, 일본 및 중국의 담배가 언제, 어디에서 처음 들어왔는가를 조사하였다. 다음으로, 3국의 담배가 처음 들어왔을 때 담배의 이름과 설화를 조사하였다. 그리고 3국 담배의 최초 이름과 그 설화의 동질성(동종성, 균질성)을 조사하였다. 동질성(Homogeneity)은 유사어로 동종성과 균질성이 있다. 동질성은 물질 또는 유기체의 균일성과 관련된 과학 및 통계에 사용한다. 동질인(균일한) 재료 또는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구성성분과 특성(예 : 색상, 모양, 크기, 무게, 높이, 분포, 질감, 언어, 소득, 질병, 온도, 방사능, 건축 디자인 등)에서 균일하다(uniform)는 것이다. 그리고 이질성(Heterogeneity)은 상기 하나의 특성에서 뚜렷하게 균일하지 않다는 것이다(Homogeneity, 2015).

결과 및 고찰

1. 우리나라 담배의 전래

우리나라 담배의 전래에 관한 문헌 중에서 한국의 집필자가 전래 당시에 생존하여 저술한 고전문헌은 Table 1과 같다. 집필 시기와 담배 전래시기의 차이가 적은 순서로 나열하였다. 그 순서는 저술시기가 빠른 순서와 같았다.

담배의 전래시기와 집필 시기가 가장 적으며, 또한 가장 빠른 시기에 기록된 고전 문헌은 이수광(李睟光, 1563~1628)의 지봉유설(芝峯類說, 1614년)이었다(李, 1614). 그 내용은 “담바고(淡婆姑)는 풀의 이름이고, 남령초(南靈草)라고도 부른다. 근세에 왜국(일본)에서 처음 나타나기 시작하였다(近歲始出倭國)”고 기록되어 있었다. 또한 이 책의 원문 서(序)에 “만력(萬曆) 42년 7월 중순”에 이수광이 썼다고 기록되어 있었다[萬曆四十二年七月中澣. 李睟光書]. 만력 42년(광해군6년, 1614년)은 담배의 전래시기를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이었다. 정확한 전래 시기는 집필시기 1614년에서 근세(近歲, 요 몇 해 사이) 2~3년을 뺀 경우 1611~1612년경이 되었다.

Table 1. The literatures that had written the origin concerning tobacco during the survival period of the Korean author.

Year	Origin	Name	Author (Birth~Death)	Book (Written year)	Content
1611~ 1612	Japan	Dambago (淡婆姑) Namryoungcho (南靈草)	Sukwang Lee (李睟光, 1563~1628)	Jibongyuseol (芝峰類說, 1614)	Tobacco was introduced from Japan a few years ago at first. There was Legend of Dambago[淡婆姑] (李, 1614).
1617~ 1618	Japan	Namryoungcho (南靈草)	Gyeongnam Jo (趙慶男, 1570~1641)	Sokjabrok (續雜錄, 1622)	Tobacco seeds came from Japan before four or five years(趙, 1622).
1615	Japan	Namryoungcho (南靈草)	Yu Jang (張維, 1587~1638)	Gyegokjip (谿谷集, 1635)	Tobacco and smoking method were introduced from Japan 20 years ago at first(張, 1635).
1616~ 1617	Japan	Namryoungcho (南靈草) Yeonda(烟茶), Yeonju(烟酒), Yocho(妖草)	Annals Agency (實錄廳)	Annals of the Joseon Dynasty (朝鮮王朝實錄, 1638)	Tobacco was introduced from Japan in 1616 ~1617. After 5 years, there was no person that does not use it (朝鮮, 1638).

이것은 우리나라 담배가 광해군 10년(1618년)에 일본에서 전래되었다는 설(노 등, 1970)보다 6~7년이 빨랐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담배는 1611~1612년경에 일본에서 처음 들어왔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로 빠른 기록은 조경남(趙慶男, 1570~1641)이 쓴 속잡록(續雜錄, 1622년)이었다(趙, 1622). 그 내용은 “세상에서 남령초(南靈草)를 많이 사용하였다. 일명 담박괴(談博怪)라고도 한다. 4, 5년 전에 그 종자가 일본에서 들어왔다(南靈草, 盛用於世 ; 一名談博怪, 四五年前, 厥種來自日本). 남방 사람들이 그것을 가져다 심어서 부자가 된 사람이 많았다(南方人取以植之致富者多).” 고 기록되어 있다. 우리나라에 담배의 종자가 들어온 시기는 저술시기 1622년에서 4, 5년을 빼면 1617~1618년이 되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담배 종자는 1617~1618년(담배가 처음 들어온 지 6년 뒤)에 일본에서 처음 들어왔다고 볼 수 있다.

세 번째로 빠른 기록은 장유(張維, 1587~

1638)가 쓴 계곡집(谿谷集, 1635년)이었다(張, 1635). 그 내용은 “남령초의 흡연법은 본래 일본에서 나왔다(南靈草吸煙之法, 本出日本). 일본인은 그것을 담박괴(淡泊塊)라 부른다(日本人謂之淡泊塊). 그 풀은 남양제국에서 나왔다고 말한다(言其草出自南洋諸國云). 우리나라는 20년 전부터 그것을 갖기 시작하였다(我國自二十年前始有之). 지금(1635년)은 위로는 공경(公卿, 고관)에서부터 아래로 여대요목(輿臺薶牧, 수레 모는 사람, 나무꾼, 마소 치는 목자)까지 그것을 피우지 않는 사람이 없다(今則上自公卿下至輿臺薶牧, 無不服之).” 고 기록되어 있다. 계곡선생집(계곡집의 서문) 서문(序文)의 초고자서(草稿自叙) 장유(張維)에 “송정(崇禎) 을해년(1635, 인조 13년) 6월”에 장유(張維, 호 持國)가 글을 썼다고 기록하였다. 담배가 처음 들어온 시기는 저술 시기(1635년)에서 20년 전을 계산할 경우 1615년이였다. 그러나 이것은 이수광의 지봉유설 1611~1612년경보다 3, 4년이 늦은 시기이고, 담배가 전래된 지 20년 뒤에

기록하였기 때문에 담배가 전래된 지 2~3년 뒤에 기록한 이수광 지봉유설의 1611~1612년경이 더 정확할 것으로 생각된다.

네 번째로 빠른 기록은 실록청(實錄廳)에서 쓴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1638년)이었다(朝鮮, 1638). 그 내용은 “남령초는 일본 나라에서 나온 풀이다(南靈草, 日本國所產之草也). 이 풀은 병진, 정사년(1616~1617년) 간부터 바다를 건너 들어와 복용하는(피우는) 자가 있었으나 유행하지 않았다(此草自丙辰、丁巳年間, 越海來, 人有服之者, 而不至於盛行). 신유, 임술년(1621~1622년)부터는 피우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辛酉、壬戌以來, 無人不服). 손님을 맞이할 때 차[茶]와 술[酒] 대신에 항상 담배를 권하기 때문에 연다(煙茶) 혹은 연주(煙酒)라고도 하였다(對客輒代茶飲, 或謂之煙茶, 或謂之煙酒). 심지어는 종자를 받아서 서로 사고팔아 바꾸기까지 하였다(至種採相交易). 오래 피운 자가 유해무익한 것을 알고 끊으려고 하여도 끝내 끊지 못하니, 세상에서 요망한 풀, 요초(妖草)이라고 일컬었다(久服者知其有害無利, 欲罷而終不能焉, 世稱妖草).” 고 기록되어 있다. 조선왕조실록에서 담배의 전래 시기는 1616~1617년으로 이수광의 지봉유설(1611~1612년)보다 5년이 늦었으나 조정남 속작록의 종자가 전래된 시기(1617~1618)와는 비슷하였다. 조선왕조실록의 집필 시기가 이수광의 지봉유설보다 24년이나 늦었고 담배가 전래된 지 22년경 뒤에 기록하였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공신력이 있었던 국가기관인 실록청이 기록하였다는 것이 중요하다. 즉, 담배가 들어 온 나라가 일본이라는 것과 1621~1622년부터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는 흡연

의 실태를 확신할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에서 담배, 담배 종자 및 흡연방법의 유래는 모두 일본이었다. 그러나 그것들의 유래가 중국이었다는 문헌은 찾아 볼 수 없었다. 우리나라 담배의 최초 전래 시기는 집필 시기와 담배 전래시기의 차이가 가장 적은 문헌(이수광의 지봉유설)에서 찾았다. 우리나라의 담배는 1611~1612년에 일본에서 처음 들어 왔다. 담배 종자도 담배가 전래된 지 6년 뒤(1617~1618년)에 일본에서 들어왔다. 흡연방법도 일본에서 들어왔다. 그리고 담배가 전래된 지 10년 뒤(1621~1622년)에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2. 삼국에 전래된 담배의 이름과 설화에서 동질성

담배이름에서 동질성 : 삼국(한국, 일본 및 중국)의 담배전래를 보면 Table 2와 같다. 한국은 1611~1612년경에 일본인이 전하였다(李, 1614). 일본의 담배는 천문(天文) 12년(1543년)의 다네가 시마(種子島 ; 규슈 남쪽의 섬)에 표류하다 도착한 포르투갈 사람들이 철포(鐵砲, 총포)와 함께 담배가 들어왔다는 설이 가장 빨랐다(日本, 2015). 중국의 담배가 유입될 수 있는 경로는 현재까지 4개가 알려져 있다. 그 중에서 시기가 가장 빠르고, 영향력이 가장 크며, 역사적 자료로서 가장 충분한 경로는 제1경로이었다(汪 등, 2006). 그것은 중국 명나라 만력삼년(萬曆三年 ; 1575년 ; 烟草, 2015)에 필리핀에서 대만과 푸젠(福建)에 들어오고, 다시 광둥(廣東)과 장시(江西) 등으로 전파한 길이었다.

전래당시의 담배이름에서 한국과 일본은 담바고(淡婆姑)로 동일하였다. 중국의 담파고(淡巴菰)는

Table 2. Homogeneity of the names for the tobaccos introduced among three countries.

	Korea	Japan	China
Introduced Year	1611~1612	1543	1575
Spread country	Japan	Portugal	Spain
Tobacco name	Dambago : 淡婆姑	Dambago : 淡婆姑	Tambaku : 淡巴菰
Homogeneity	O*	O*	X

* : The Korea tobacco name, Dambago(淡婆姑), was the same as Japan tobacco name, Dambago(淡婆姑).

한국과 일본의 담바고와 동일하지 않았다. 한국 담배의 이름은 이수광의 지봉유설(1614년)에서 “담바고(淡婆姑)는 풀이름이고 몇 해 전에 왜국(일본)에서 처음 들어왔다.” 라고 기록하였다(李, 1614). 일본의 담배 이름은 “담바고(淡婆姑)” 라는 이름이 있었다(タバコ, 2015). 중국 담배의 이름은 요려(姚旅)의 노서(露書, 1613년)에 “여송국(呂宋國, 필리핀)에서 나온 하나의 풀은 담파고(淡巴菰)이고, 일명 훈(醺, 취할 훈)이라 말한다.” 고 기록하였다(烟草, 2015).

이상과 같이 한국에 전래되었을 때 담배의 이름, 담바고(淡婆姑)는 일본의 담배이름과 동일하였으나, 중국의 담배이름, 담파고(淡巴菰)와는 동일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최초로 전래된 담배이름의 이 기재되어 있다(岡本, 2012 ; 岡本, 1698 ; 煙

草, 2013). 그 내용은 “한 여자가 남쪽에 미개한 땅(南蠻國)에서 살았다. 그녀의 이름은 담바고(淡婆姑)이었다. 그녀는 가래의 질병으로 오랫동안 고통을 받았다. 그녀는 병을 치료하기 위해 풀을 사용하여 질병을 치료하였다. 그 후, 사람들은 그것을 담바고(淡婆姑)라고 불렀다. 이 풀은 담배이었다(李, 1614 ; 煙草, 2013).” 고 기록하였다.

중국의 담배에서 담바고설(淡婆姑說)은 없었으나 담파고(淡巴菰) 또는 반혼향(返魂香)이라는 설화가 있었다. 그 내용은 “루손 섬(지금의 필리핀)에 담파국(淡巴國)이 있었다. 어느 날, 공주가 죽 동질성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담배이름은 일본에서 온 것이 거의 확실하다.

담배 설화에서 동질성 : 삼국에서 담배의 설화는

Table 3. Homogeneity of the folk tales for the tobaccos introduced among three countries.

Folk tale name <Country>	Folk tale story	Homogeneity with Korea
1. Dambago (淡婆姑) <Japan> <Korea>	An women lived in an uncivilized land in the south. Her name was Dambago(淡婆姑). She was suffered from phlegm disease during a long time. She used an plant leaf to cure. After used the leaf, she was cured of the disease. Thereafter, peoples gave name to Dambago it. The plant was tobacco(李, 1614 ; 煙草, 2013).	O*
2. Tambaku (淡巴菰) or Banhonhyang (返魂香) <China>	China ; There was a Tamba-Country(淡巴國) in Luzon island. One day, the princess died. People threw out her in field. Unthinkable event happened. She was in a place where she can smell the aroma of tobacco. And she soon became healthy. She revived her mind. And she came back home. The translated name was "Tambaku(淡巴菰)", it was tobacco. Also it was called "Banhonhyang(返魂香)" as another mysterious name(楊, 2014).	X
3. Banhoncho (返魂草) <Japan>	Japan ; There was a ghost country over the southern sea. The country, there was a custom to threw out serious patient in the heart of the mountains. One day, one women get the serious illness. People threw out her in the heart of the mountains without exception. Trancedly, she was inhaled a smell of some plants. And she soon became healthy. She revived her mind. And she came back home. This plant was tobacco. After that, people called it Banhoncho(返魂草). Its meaning is that the plant can bring back the soul(煙草, 2013 ; たばこ, 2007)	X

* : The Korea tobacco's folk tale, Dambago(淡婆姑) story, was the same as Japan tobacco's folk tale, Dambago(淡婆姑) story.

Table 3과 같다. 먼저 담바고설(淡婆姑說)은 한국과 일본에 있었으나 중국에는 없었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의 담바고설은 내용도 동일하였다. 한국의 담바고설은 이수광의 지봉유설에 있다(李, 1614). 일본의 담바고설은 강본일포(岡本一包, 1654~1716)가 쓴 화어본초강목(和語本草綱目, 1698)에 남蛮국여인담바고설(南蛮國女人淡婆姑說)였다. 사람들은 그녀를 야외에 버렸다. 그런데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그녀가 담배의 향기를 맡을 수 있는 곳에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금방 건강해졌다. 그녀는 마음이 되살아났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때부터 그것을 번역한 이름 “담파고(淡巴菰, Tambaku)”가 담배이었고 또 신비로운 이름으로 “반혼향(返魂香)”이라 하였다(楊, 2014).” 고 기록하였다.

일본의 담배에서 설화는 담바고설 이외에 반혼초(返魂草)의 설화도 있다. 그 내용은 “남쪽 바다 저쪽에 귀신의 나라가 있었다. 그 나라는 중병에 걸리면 사람을 깊은 산 속에 버리는 관습이 있었다. 어느 날, 한 여자가 중병에 걸렸다. 사람들은 그녀도 예외 없이 깊은 산 속에 버렸다. 낮을 잃고 그녀가 어떤 풀의 향기를 맡았다. 그리고 그녀는 금방 건강해졌다. 그녀는 마음이 되살아났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 풀이 담배이었다. 반혼초(返魂草)의 뜻은 영혼을 돌아오게 할 수 있는 풀이라는 것이다(煙草, 2013 ; たばこワールド, 2007).” 고 기록하였다. 이 설화는 중국의 담파고(淡巴菰) 또는 반혼향(返魂香)과 유사하였지만 동일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담바고설과도 동일하지 않았다.

한국과 일본의 담바고 설화, 중국의 담파고(淡巴菰)와 반혼향(返魂香) 설화, 그리고 일본 반혼초(返魂草) 설화는 공통적으로 여자가 주인공이었다. 그리고 중병 또는 죽음에서 담배를 사용하거나 담배의 향기를 맡으면, 건강을 회복하거나 죽은 사람이 되살아났다(返魂)는 이야기이었다. 따라서 전래 당시에 담배는 신비한 영약으로 생각했던 것 같다. 반혼초(返魂香)의 최초 전설은 중국 한무제 때 동방삭(東方朔)의 해내십주기(海內十洲記)에 있고(返魂香, 2014), 명나라 이시진(李時珍)의 본초강목(本草綱目, 1578년)에도 기재되어 있다. 그

내용은 역병(疫病, 유행성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에게 이 향을 콩알만큼 태우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반혼(返魂)이라 한다(返魂香, 2014). 그러나 현대의 학자들은 전설적인 반혼향이 현재 소합향(蘇合香)의 특징과 일치한다고 말한다(返魂草, 2014). 또한 반혼초(返魂草)는 반혼향과 다르고 자완(紫菀)의 다른 이름이다. 자완은 국화과 식물인 개미취(학명 : Aster tataricus L.)의 뿌리를 말린 것이다(返魂草, 2014 ; 紫菀, 2014). 중국의 담파고 또는 반혼향의 설화와 일본의 반혼초 설화는 담배가 전래되기 전부터 유사한 전설이 있었기 때문에 반혼향의 전설에 근거하여 만든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 담배의 담바고(淡婆姑) 설화는 일본의 설화와 이름과 내용이 동일하였다. 그러나 중국 담배의 담파고(淡巴菰) 또는 반혼향(返魂香) 설화와는 동일하지 않았다.

이상의 연구결과에서 한국에 처음 전래되었을 때 담배이름, 담바고(淡婆姑)는 일본의 담배이름과 동일하였다. 그러나 한국의 담바고는 중국의 담배이름, 담파고(淡巴菰)와는 동일하지 않았다. 또한 전래 당시 한국 담배의 담바고(淡婆姑) 설화는 일본의 설화와 내용이 동일하였다. 그러나 중국 담배의 담파고(淡巴菰) 또는 반혼향(返魂香) 설화와는 내용이 동일하지 않았다. 본 연구결과는 삼국에 전래된 담배의 이름과 설화에서 동질성으로 본 한국 담배의 기원은 일본이 확실하다는 것을 제시한다.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에 전래된 담배의 이름과 설화를 다른 나라와의 동질성을 비교하여, 우리나라 담배의 기원을 확립하는 것이다. 저자가 담배, 종자 및 흡연방법의 도입, 그리고 흡연 실태 등을 그의 생존기간에 저술한 문헌을 참고하였다. 우리나라의 담배는 1611~1612년에 일본에서 처음 들어 왔다. 담배의 종자는 담배가 전래된 지 6년 뒤(1617~1618년)에 일본에서 들어왔다. 그리고 담배가 전래된 지 10년 뒤(1621~1622년)에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전래 당시 한국의 담배이름, 담바고(淡婆姑)는 일본의 담배이

름과 동일하였다. 그러나 한국의 담바고(淡婆姑)는 중국의 담배이름, 담파고(淡巴菰)와 동일하지 않았다. 그리고 전래 당시 한국 담배의 담바고(淡婆姑) 설화의 내용은 일본 담배 설화의 내용과 동일하였다. 그러나 중국 담배의 담파고(淡巴菰) 또는 반혼향(返魂香) 설화와는 내용이 동일하지 않았다. 본 연구결과는 삼국에 전래된 담배의 이름과 설화에서 동질성으로 본 한국 담배의 기원은 일본이 확실하다는 것을 제시한다.

참 고 문 헌

- 煙草(2013) 煙草의 語源って一体どれ? さらにディープ、たばこの歴史, 2013년 08월 27일, <http://cigarstop.blog.fc2.com/blog-entry-287.html>
- 한국고전종합DB(2009) <http://db.itkc.or.kr/itkcdb/mainIndexIframe.jsp>
- Homogeneity(2015)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https://en.wikipedia.org/wiki/Homogeneity_and_heterogeneity#Homogeneity
- 返魂香(2014) 維基百科自由的百科全書, 2014년 1월 24일, <https://zh.wikipedia.org>
- 返魂草(2014) 維基百科自由的百科全書, 2014년 10월 21일, <https://zh.wikipedia.org>
- Internet World Stats(2015) Internet Users in the World Stats, on June 30, 2015, <http://www.internetworldstats.com/stats.htm>
- 張維(1635) 谿谷集, 谿谷漫筆 第一卷 漫筆, 南靈草吸煙, 1635, 한국고전종합DB
- 趙慶男(1622) 續雜錄, 續雜錄二, 壬戌年(1622), 한국고전 종합DB
- 朝鮮王朝實錄(1638) 仁祖 16年 08月 04日, 1번째 기사, 우리나라 사람이 담배를 심양에 들여보내다 발각되어 할책을 당하다, 1638, 한국고전 종합DB
- 李晬光(1614) 芝峯類說, 卷十九食物部, 藥, 1614, 한국고전 종합DB
- 류익상(1994) 우리나라 고농서에서 본 담배 명칭과 전래, 한국작물학회지 39(2); 198-204, 1994
- 日本の喫煙(2015) ウィキペディア, たばこの伝來, 2015년 8월 1일
- 노재영, 정원채, 변주섭, 손석용, 성주필, 안장헌, 이태용, 배길관, 강신우(1970) 연초학, 삼양출판사 ; 16-17
- 岡本一抱(1698) 江戸期の本草・名物・物産・博物書 成立・初版年表, <http://mayanagi.hum.ibaraki.ac.jp/materials/EdoBencaobook.html>
- 岡本一抱(2012) ウィキペディア, 2012년 8월 4일, <https://ja.wikipedia.org/wiki/タバコ>
- 타바코(2015) ウィキペディア, 2015년 8월 1일, <https://ja.wikipedia.org/wiki/たばこ>
- たばこワールド(2007) たばこジャーナル, 文化, たばこクロニクル, 2007년, たばこの異名あれこれ, 03 たばこの異名あれこれ
- VIP維普网 (2015) VIP維普网, 2014-2015, <http://www.cqvip.com>
- 汪銀生張翔(2006) 明清時期福建烟草的傳入與發展, VIP維普网, 網站首頁, 《中文科技 期刊數據庫》, 農林牧漁, 農學, 農作物, 摘要, 農業考古》2006年 第1期 中國科技技術大學, <http://www.cqvip.com/QK/97029X/200601/21883085.html>
- 維基百科(2015) 維基百科自由的百科全書, 2015, <http://zh.wikipedia.org>
- 楊馥戎(2014) 華夏經緯網, 文化, 古今雜談, 中國明清已有“禁煙令” 清名醫提出吸煙有害(圖), <http://big5.huaxia.com/zhwh/gjzt/2014/01/3700553.html>
- Yahoo Japan(2015) <http://www.yahoo.co.jp>, Copyright (C) 2015 Yahoo Japan Corporation.
- 烟草(2015) Wikipedia, 中文, 2015년 7월 25일, <http://zh.wikipedia.org/wiki/烟草>
- ウィキペディア(2015) ウィキペディアフリー百科事典, 2015년 6월 22일(月), <https://ja.wikipedia.org>
- 紫菀(2014) ウィキペディア, 2014년 10월 21일